

동거녀 윤락가 넘겨

서울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7일 부녀자들을 상습적으로 술집에 팔아넘긴 유영교(33·동대문구 용두동 40-7)씨와 유씨로부터 이들을 인수받아 윤락행위를 시켜온 술집 주인 강연순(35·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성2리 603-4)씨에 대해 영리유인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 전과9범인 유씨는 86년 9월 9개월 동안 동거해오던 박아무개(23)씨를 70만원에 강씨에게 넘겼으며 강씨는 박씨와 또다른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넘겨받은 김아무개(25)씨를 자신이 경영하는 전북 군산시 중앙로3가 '밤나비'라는 술집에서 윤락행위를 시켜 이들로 부터 모두 1천8백만원 상당의 화대를 가로채왔다는 것이다.

91.12.8

경찰 순찰차 훔쳐

여고생 납치 기도

91.12.18

【광주=안관옥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경찰 순찰차를 훔쳐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이진연(3

4·함평군 함평읍 함평리·전과 9범)씨를 붙잡아 절도와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네거리 논노대리점 앞길에서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광주1가9844 순찰차(탑승자 강연오·김이조 경장)를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까지 순찰차를 몰고가 고아무개(17·고2)양 집에서 “오빠가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서 알아볼 것이 있다”며 고양을 차에 태운 뒤 납치하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고양이가 1km쯤 가다 차문을 열고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고양은 순찰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와 목·다리에 심한 찰과상을 입고 함평읍 제일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무안읍 박병원에서 머리를 6바늘 꿰맸다.

이씨는 고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조연형(48)씨 등 주민들이 몰려나오자 그대로 달아나 15일 새벽 4시에 광주시 북구 신안동 북광주전신전화국 뒷골목에 차를

버린 뒤 고향집에 숨어있다 붙잡혔다.